

# “KIA, 2~3년 뒤 다른 팀으로 변모할 것”



KIA 타이거즈 박홍식 감독대행이 세대교체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홍식 감독대행은 2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경기

박홍식 감독대행, 세대교체에 자신감  
“다행히 좋은 젊은 선수 몇몇 있어”

전 인터뷰에서 “우리 팀은 이제 세대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히 좋은 젊은 선수들이 몇몇 있다. 빠르면 2~3년, 늦어도 4~5년 안에 세대교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A는 올 시즌 49승 1무 64패 승률 0.434로 리그 7위에 머무르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며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통릴리프로 등판해 좋은 모습을 보인 이민우는 선발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이민우는 8월 1군에 콜업돼 2경기(7⅓이닝) 평균자책점 2.45를 기록했다.

박홍식 감독대행은 “이민우가 통릴리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선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난 18일 경기에서 4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곧바로 선발 등판하는 것은 어렵다. 다음주에 선발 기회를 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타선에서는 유민상의 방망이가 뜨겁다. 유민상은 올 시즌 36경기 타율 3할6푼(86타수 31안타) 2홈런 16타점을 기록 중이다. 박홍식 감독대행은 “현재 우리 팀에서 가장 컨디션이 뛰어난 타자다.”

전속속타인 두산 베어스와 KT 위즈에서도 타격은 인정 받았던 선수다. 그런데 수비가 발목을 잡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우리 팀에서도 1군에 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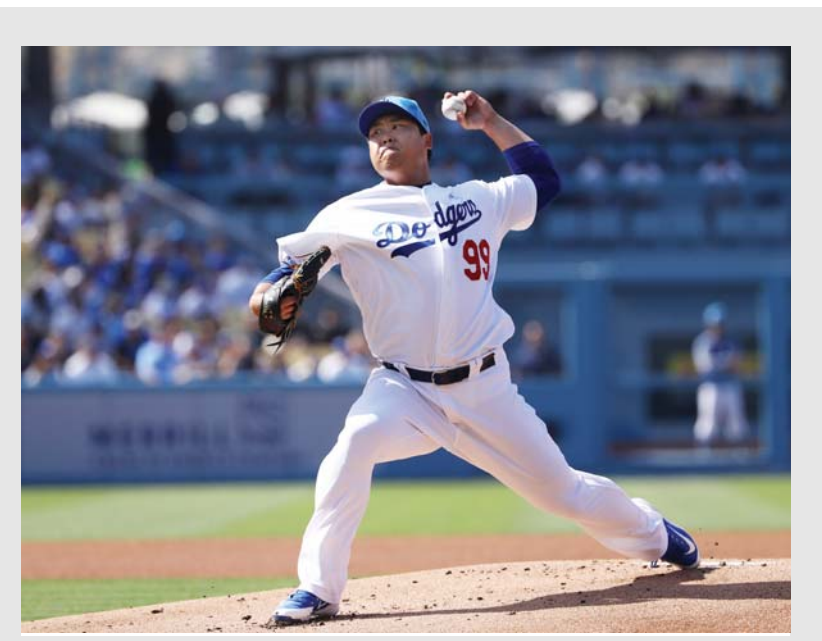
려운 상황이었는데 김주찬의 부상으로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는 김호령이 돌아왔다. 하지만 1군에 합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홍식 감독대행은 “김호령이 한 달 가까이 실전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먼저 2군 경기를 소화하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빠르면 다음주나 9월 확대 엔트리 때 1군에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령과 함께 전역한 고장혁(내야수), 이진영(외야수), 김명찬(좌완투수)도 팀의 미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원이자

제대를 앞두고 있는 상무 포수 이정훈도 박홍식 감독대행이 눈여겨 보고 있는 선수다. 다만 상무 선수들은 오는 9월 17일 전역을 하기 때문에 올 시즌 기용은 힘들다. 하지만 다음 시즌부터는 팀의 리빌딩의 주축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박홍식 감독대행은 “젊은 선수를 주축으로 팀을 개편하면 당장 성적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전성기에 접어들면 지금과는 다른 팀으로 변모할 것이다. 발 빠르게 작전수행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 ‘육상부’라고 불렸던 전성기 두산 베어스와 같은 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 “류현진, FA 시장 상대적 저평가”

MLB.com “적절한 시기에 놀라운 활약”

류현진(32·LA다저스)이 올해 뛰어난 활약을 펼쳤음에도 다가오는 FA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엠엘비닷컴(MLB.com)은 22일(한국시간) 류현진이 FA 투수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제하 기사에서 이번 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얻는 류현진을 집중 조명했다.

류현진은 2018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었지만 다저스의 켈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여 1년 1700만달러에 계약을 맺고 FA 재수를 택했다.

올 해 성적에 봤을 때 FA 재수를 택한 그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다. 류현진은 올해 23경기에서 12승 3패 평균자책점 1.64의 성적을 거뒀고 사이영상 강력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MLB.com은 “류현진이 적절한 타이밍에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

다’며 드래프트 지명권 보상이 없는 점도 류현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MLB.com은 이러한 호의적인 상황에도 류현진이 FA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봤다.

이번 FA 시장에는 류현진뿐만 아니라 게리 쿨(휴스턴), 매디슨 범가너(샌프란시스코), 맬리스 카이클(애틀랜타), 로비 레이(애리조나), 켄 윌러(뉴욕 메츠) 등이 나온다.

MLB.com은 “왜 볼, 범가너가 더 많이 언급되는가. 카이클, 레이, 윌러의 영입 전망 소식이 더 자주 들린다”며 의문을 드러냈다.

MLB.com은 구단 주요 관계자들의 류현진에 대한 평가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제시한 관계자들 중 대부분이 류현진의 나이나 부상 이력이 FA 계약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류현진을 FA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홍식 감독대행 “유민상, 수비 컨디션 최상...수비 불안 이겨내야 주전 가능”

“송구 가다듬어야”

박홍식 KIA 타이거즈 감독대행이 이번 시즌 타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유민상에 대해 수비 보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감독대행은 2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타선에서는 (유)민상이 컨디션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비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민상은 이번 시즌 35경기에 출전해 타율 0.360(86타수 31안타) 2홈런 16타점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다르다. 유민상은 전날 경기에서도 송구 실책을 범하면서 대량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박 감독대행은 유민상이 수비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송구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비 코치와 이야기해보면 가장 어려운 것은 송구다. 여제도 실수가 있었다.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교정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송구라고 한다. 한번 어긋나면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민상의 수비는 과거 두산, KT 시절에도 제기됐던 문제다. 수비 불안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명 타자, 대타로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박 감독대행은 “2군에서도 타격 하더라도 1군 주전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유민상이 꾸준하게 1군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비 불안은 해쳐나야 한다. 이겨내야 주전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 정현 · 권순우 나란히 US오픈 예선 2연승

정현(23·한국체대·151위)과 권순우(21·CJ·90위)가 나란히 US오픈(총상금 5700만 달러) 본선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뒀다.

정현은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메이저대회 US오픈 남자 단식 예선 2회전에서 이탈리아의 스테파노 나폴리타노(211위)를 2-0(6-26-3)으로 꺾었다.

올해 초 허리 부상에 시달렸던 정현은 8월초 청두 쉐린저에서 우승하며 반등을 시작했다. 이제 1승만 더 올리면 US오픈 본선에 오르게 된다.

정현은 예선 결승에서 스웨덴의 마이클 이머르(107위)와 격돌한다. 두



선수의 첫 번째 결승이다. 권순우도 독일의 오스카 오테(160위)를 2-0(6-26-4)으로 누르고 예선 결승에 진출했다. 권순우의 결승 상대는 캐나다의 스티븐 디에즈(175위)다. 정현과 권순우의 예선 결승은 24일 새벽 진행될 예정이다.

**명품하는 행복의주변**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